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집

1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01. 사회를 비추는 문학)

본책 4~7쪽

- ① 소시민 ② 동맹 ③ 먹고살기 ④ 희망 ⑤ 공존
⑥ 가치

01 ④ 02 ② 03 두 가게의 간격이 일백 미터도 채 못 될 만큼 가깝고, 두 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04 ⑤ 05 ① 06 ④ 07 ① 08 ④ 09 ⑤
10 마침내 싱싱 청과물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 반장의 먹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11 ① 12 새로 전파상이 들어와 경쟁 상대가 생기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13 ③
14 온라인 세상에서 받는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좋아요'의 수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01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과 등장인물의 심리,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02 (나)에는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상경한 경호네 내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집집마다 유선 방송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유선 방송과 텔레비전 보급이 활성화되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에는 동네 거리의 가게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대형 마트의 등장으로 골목 상권이 사라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에서 원미동 사람들은 이웃 간의 일에 관심이 많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인정이 사라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모두 연탄을 판매하는데, 이 부분에서 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03 (다)에서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간격이 일백 미터도 채 못 되고, 김포 슈퍼에서 쌀과 연탄만 취급했을 때에는 모두 형제 슈퍼에서 물건을 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김포 슈퍼의 확장 개업과 이에 대한 형제 슈퍼의 대응으로 두 가게가 취급하는 품목이 같아지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싱싱 청과물은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포 슈퍼,

형제 슈퍼와 가까운 거리에 개업을 하였으며, 두 가게와 동일한 품목을 취급한다. ㉔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싱싱 청과물이 두 가게와 같동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싱싱 청과물 사내가 동네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바)에서 고흥댁은 형제 슈퍼에서 금방 산 비누를 물리고 김포 슈퍼에서 더 싼값으로 비누를 다시 사는 등 가격 경쟁을 벌이는 두 가게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고흥댁은 이웃 간의 의리보다 실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고(㉑),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는 이해타산적인 인물이다(㉒).

06 이 글에서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한 동네의 이웃끼리 갈등하는 사건을 다룬다. 작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전달한다.

07 (라)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와 몸싸움을 벌인 인물은 김 반장이므로, 경호 아버지와 싱싱 청과물 사내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다)에서 구정 대목에 두 가게가 판매하는 과일 가격은 싱싱 청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고 하였으므로, (가)에서 경호네와 김 반장이 싱싱 청과물을 몰아내기 위해 동맹을 맺으며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경호네와 김 반장의 동맹의 목적은 싱싱 청과물을 동네에서 몰아내기 위함이다.

② (나)에서 경호네와 김 반장은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가격을 대폭 내려 판매하기로 하였다.

③ (나)에서 경호네와 김 반장은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였다.

⑤ (다)에서 김 반장은 싱싱 청과물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며 핸드 마이크를 쳐들고 횡방을 놓았다고 하였으므로, 은밀하게 다가가 두 슈퍼로 올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㉑에서 '고래 세 마리'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그리고 새로 개업한 싱싱 청과물을 의미하며, 먹을 게 더 많아진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네 사람들은 싱싱 청과물의 개업으로 경쟁하는 가게가 늘어 가게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물건을 더 싸게 팔면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10 이 글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은 두 가게로부터 장사를 방해받던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의 먹살을 잡으며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부분으로, (라)의 '마침내 싱싱 청과물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 반장의 먹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이다.

11 (나)에서 전파상이 새로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시내

엄마는 똑같은 장사를 벌여 놓았다가는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며 한 동네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개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에서 시내 엄마의 발언 내용이 잠깐 사이에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고 하였으므로, 전파상의 등장 예고 이전에는 시내 엄마가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시내 엄마의 답변은 한 동네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개업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동네 이웃끼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같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12 이 글에서 시내 엄마는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오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와 같은 업종의 가게가 한 동네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고객을 확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파상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내 엄마가 가장 올상인 까닭은 새로 전파상이 들어와 경쟁 상대가 생기면 자신의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13 ㉠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받는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은 하트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므로, ㉠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14 [A]에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좋아요', 즉 다른 사람의 애정과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이것을 경쟁력으로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A]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받는 관심의 정도, 즉 '좋아요'의 수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공감하고 조정하는 대화) 본책 8~11쪽

① 상대 ② 격려 ③ 요약 ④ 감정 ⑤ 악화
⑥ 요청

01 ④ 02 ③ 03 ③ 04 객관적인 상황 전달, 자신이 느낀 감정 표현 05 ④ 06 나도 생각보다 앞머리를 짧게 잘라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앞머리는 빨리 자라서 금방 자연스러워지더라. 07 ④ 08 ② 09 ⑤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⑤ 15 ⑤ 16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은 갈등을 악화시킨다. 17 ⑤

01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상대가 느꼈을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대화이다.

02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는 '집중하기'와 '격려하기'가 있다.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집중

하기'의 방법에 해당하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라고 질문하며 상대가 말을 이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격려하기'의 방법에 해당한다.

03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는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를 말한다.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며,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목적이나 효과로 볼 수 없다.

04 제시된 문장에서 "네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한 것이고, "나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워."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05 (가)에서 민재는 자신의 앞머리를 보고 웃으며, 직설적으로 앞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우와 하리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건우와 하리의 부정적인 반응은 민재의 감정이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민재와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06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경험 공유하기'는 상대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앞머리를 잘못 잘라 당황한 민재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나도 생각보다 앞머리를 짧게 잘라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앞머리는 빨리 자라서 금방 자연스러워지더라."라고 말해 줄 수 있다.

07 (나)에서 민재는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을 말없이 나가는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8 (나)에서 민재는 단체 대화방을 나가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속상하고 우울하다며 게시 글을 올렸으며, 친구들의 사과에도 차갑게 반응하는 등 갈등 상황에 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민재가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9 (가)에서 하리는 자신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민재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면서 민재를 탓하는 말을 한다. 이러한 표현은 민재와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하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표현을 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조언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10 (가)에서 세아는 건우의 고민을 경청하면서 건우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우가 민재에게 사과할

때 실수한 부분을 짚어 주는 내용은 세아와 건우의 대화 장면
에 나타나지 않는다.

11 (가)에서 세아는 건우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반
면, 제시된 말에서는 건우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건우의 고민
을 ‘심각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세아가 건
우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면 건우는 세아가 자신
의 입장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건우와 세
아의 대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2 (나)에서 민재와의 대화가 끝난 후 건우는 “세아 말대로 대화
해 보길 잘했다.”라고 말하며 후련해지는 반면, 민재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찌뚱한 표정을 짓고 있다.

13 (나)에서 민재가 오해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 주고 이를 바로
잡는 건우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에서 민재는 건우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반면, <보기>
에서는 “나는 너희가 내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말해 주길 바랐거든.”이라고 말하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욕
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서운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
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만, ㉠에서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과 다르게 상대
의 입장과 처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③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서로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
지 못했기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에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에서는 “이제 됐지?”라고 말하며 갈등 상황을 서둘러 마
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객
관적인 상황, 자신이 느낀 감정과 욕구 등을 진솔하고 구체적으
로 전달하고 있다.

15 우주와 현서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발표를 준비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차이를 배려하고 존중하
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16 ㉠에서 우주는 책임감이 없다며 현서의 태도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상대와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17 제시된 말에서 우주는 현서와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객관적으
로 전달하고, 그때 자신이 느낀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
하고 있다. 이렇듯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의 관
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며,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의 요
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
화의 효과로 볼 수 없다.

2 빛나는 우리 말글살이

(01. 한글의 원리와 가치)

본책 12~15쪽

① 자주 ② 애민 ③ 실용 ④ 발음 기관 ⑤ 가획
⑥ •(아래아) ⑦ 모아쓰기 ⑧ 음절 ⑨ 소리

01 ⑤ 02 ② 03 ④ 04 ② 05 ㄸ 06 ⑤
07 ③ 08 ③ 09 ⑤ 10 한글은 기본자를 바탕으로
원리에 따라 글자를 조합하여 여러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체계적
인 문자이다. 11 ⑤ 12 ① 13 글자를 읽기 쉽고, 글자
가 지닌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4 ④ 15 ②

01 (가)에서 평범한 백성이 한자를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세종이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어서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 쓰니 백성이 고초를 겪는다
며 침통해하고 있다. 따라서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도 말이 통하
였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생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우리말과 한자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
을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자
를 만들고자 하는 점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나고, 한자(글
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
겨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점에서 애민 정신(㉡)이 드러나며,
누구나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자 하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03 한글 창제 당시 만들어진 자음 열일곱 자 가운데, ‘ㅎ(여린히
읻)’, ‘ㅇ(옛이읻)’, ‘ㄷ(반치읻)’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04 ‘ㄷ’보다 소리가 더 센 가획자는 ‘ㄷ’이 아니라 ‘ㅌ’이다. ‘ㄷ’은
이체자이므로 일반적인 가획자와 달리 더해진 획이 소리가 세
진다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05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는 ‘ㅁ’이고, ‘ㅁ’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는 ‘ㅂ’이다. ‘ㅂ’을 가로로 나란히 쓴 자음자는 ‘ㅃ’
이다.

06 ‘선생님’에 쓰인 자음 ‘ㅅ, ㄴ, ㅇ, ㅁ’은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
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이다.

| 오답 풀이 | ① ‘등산’에 쓰인 자음 중 ‘ㄷ’은 가획자이고, ‘ㅇ, ㅅ,
ㄴ’은 기본자이다.

② ‘하마’에 쓰인 자음 중 ‘ㅎ’은 가획자이고, ‘ㅁ’은 기본자이다.

③ ‘그림자’에 쓰인 자음 중 ‘ㄱ, ㅁ’은 기본자이고, ‘ㄹ’은 이체자
이며, ‘ㅈ’은 가획자이다.

④ ‘뽀꾸기’에 쓰인 자음 중 ‘ㅃ’은 가획자 ‘ㅂ’을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이고, ‘ㄱ’은 기본자 ‘ㄱ’을 가로로 나란히 쓴 글자이며,
‘ㄷ’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이다.

07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합성의 원리는 모음의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08 ‘·’와 ‘ㅣ’를 더해 ‘ㄷ’을, ‘ㄷ’과 ‘ㅣ’를 합하여 ‘네’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모음자는 ‘ㅣ’이다.

09 ㉠은 기본자 ‘·’, ‘ㅡ’, ‘ㅣ’와 초출자 ‘ㄱ, ㅋ, ㆁ, ㆁ’, 재출자 ‘ㄴ, ㄷ, ㄹ, ㄹ’을 서로 합하여 만든 열한 자의 모음 외에 다양한 모음자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초출자 ‘ㅌ’와 기본자 ‘ㅣ’를 합하여 만든 ‘ㅌ’((㉡)), 초출자 ‘ㄱ, ㅌ’와 기본자 ‘ㅣ’를 합하여 만든 ‘내’((㉢))가 그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기본자 ‘ㅡ’와 ‘·’를 합하여 만든 ‘ㅌ’는 초출자이다. ㉢. 초출자 ‘ㅌ’와 ‘·’를 합하여 만든 ‘ㅌ’는 재출자이다.

10 한글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서로 결합하는 등의 원리에 따라 글자를 조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든 문자이다.

11 제시된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글자는 ‘답’이다. ‘답’에 쓰인 자음자 ‘ㄷ’과 ‘ㅍ’은 각각 기본자 ‘ㄴ’, ‘ㅍ’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이고, 모음자 ‘ㅏ’는 기본자 ‘ㅣ’와 ‘·’가 한 번 결합한 초출자이다.

| 오답 풀이 | ① 잣: 자음자 ‘ㅈ’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② 곰: 자음자 ‘ㄱ’, ‘ㅁ’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③ 벌: 모음자 ‘ㅓ’는 ‘·’가 두 번 결합한 재출자에 해당한다. ④ 숲: 자음자 ‘ㅈ’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12 사람의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에는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덩어리로 소리 난다. 한글은 이를 반영하여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쓴다(ㄱ). 또한 한글은 글자의 처음 소리, 중간 소리, 마지막 소리를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ㄴ).

| 오답 풀이 | ㄴ. 자음자는 글자의 처음과 마지막에, 모음자는 중간에 쓴다. ㄴ. 글자의 처음 소리, 중간 소리, 마지막 소리를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것은 풀어쓰기에 해당한다.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3 ㉡는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고, ㉢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와 같이 표기하면 ㉢보다 글자를 읽기 쉽고, 글자가 지닌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4 스물여덟 개의 글자만으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의 실용성과 관련이 있다.

15 같은 문장을 스마트폰 자판으로 입력할 때의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한글의 문자 입력 속도가 빠른 까닭은 한글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이므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소리를 입력하면 문자가 완성되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빠른 것이다.

(02. 음운의 체계)

본책 16~19쪽

① 자음 ② 모음 ③ 길이 ④ 목청 ⑤ 비음 ⑥ ㄴ
⑦ 이중 ⑧ 입술 ⑨ ㅌ

01 ② 02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03 ③ 04 ④ 05 ① 06 ‘ㄴ’은 코안을 울려 소리 내는 비음이므로 코가 막히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07 ⑤ 08 ③ 09 ②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⑤ 15 ⑤ 16 ④ 17 ④ 18 ③ 19 ① 20 ‘내’를 ‘네’로 발음해서 남학생이 잘못 알 아들었다. ‘내’는 ‘네’보다 입을 크게 벌려서 혀의 위치가 낮게 발 음해야 한다. 21 ②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 ‘말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는 음절이다. ③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는 말소리이다. ④ 발음할 때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 받으며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다. ⑤ 발음할 때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모음이다.

02 <보기>에서 ‘말’을 ‘[말]’로 짧게 발음하면 ‘말과의 포유류.’라는 뜻이 되고, ‘[말:]’로 길게 발음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라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이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말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라고 볼 수 있다.

03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 ‘갑[갑:]’에서 자음 ‘ㄱ’만 ‘ㅌ’로 바꾸면 ㉡ ‘밤[밤:]’이 아니라 ㉢ ‘밤[밤:]’이 된다.

04 ㉠ ‘입술소리’는 ‘ㅍ, ㅑ, ㅓ, ㅕ, ㅗ, ㅛ’, ㉡ ‘잇몸소리’는 ‘ㄷ, ㅌ, ㅎ, ㅗ, ㅜ, ㅝ, ㅟ’, ㉢ ‘천장소리’는 ‘ㄷ, ㅌ, ㅎ, ㅗ, ㅛ’, ㉣ ‘어린입천장소리’는 ‘ㄱ, ㅋ, ㆁ, ㆁ’, ㉤ ‘목청소리’는 ‘ㅎ’이다.

05 ‘ㄱ’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는 파열음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 ‘ㄴ’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소리 내는 유음(흐름소리)으로,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울림소리이다. ③, ⑤ ‘ㄹ’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 내는 비음이다. ④ ‘ㅌ’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는 파열음이다.

06 자음 중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소리인데,

이 중 비음(ㄴ, ㄹ, ㅇ)은 코안을 울려 소리 내므로 코가 막히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다.

07 입안이나 목청 사이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마찰음으로, ‘ㅅ, ㅆ, ㅎ’이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단어 중 마찰음을 포함한 단어는 ‘호수’이다.

08 ‘빙글빙글’은 각 음절의 처음 소리가 모두 예사소리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된소리가 포함된 ‘뽀뽀뽀뽀’, ‘뽀뽀뽀뽀’, ‘쓱쓱쓱’, ‘쫄랑쫄랑’에 비해 약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든다.

09 ‘ㅅ, ㅆ, ㅈ’은 모두 파찰음으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ㄱ, ㅋ, ㆁ, ㄷ, ㅌ, ㅊ, ㅍ)이다.

10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소리 나는 것은 잇몸소리(ㄷ, ㅌ, ㅊ, ㅍ, ㅅ, ㅆ, ㄴ, ㄹ)이고, 그중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고 소리 나는 안울림소리는 ‘ㄷ, ㅌ, ㅊ, ㅍ, ㅅ, ㅆ’이다. 마지막으로 성대를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숨을 보통으로 내쉬어 내는 예사소리는 ‘ㄷ, ㅅ’이다. 단어의 마지막 소리가 ‘ㄷ’ 또는 ‘ㅅ’인 단어는 ‘뚝’이다.

11 ‘달린’에 쓰인 자음은 ‘ㄷ’, ‘ㄹ’, ‘ㄴ’이다. 이 중 ‘ㄹ’과 ‘ㄴ’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는 울림소리에 해당하지만, ‘ㄷ’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에 해당한다.

1 오답 풀이 ① ‘파란’에 쓰인 자음 ‘ㅍ, ㄹ, ㄴ’ 중 ‘ㅍ’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소리이다.

③ 된소리인 ‘뽀’가 쓰인 ‘뽀뽀’는 예사소리인 ‘ㅂ, ㅍ’이 쓰인 ‘발’보다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든다.

④ ‘소녀’에 쓰인 자음 ‘ㅅ,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소리 나는 잇몸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⑤ ‘봄바람’의 첫 음절인 ‘봄’의 처음 소리 ‘ㅂ’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는 파열음이다.

12 모음은 ‘ㅏ, ㅑ, ㅓ, ㅕ’ 등과 같이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이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만 소리 낼 수 있지만,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13 <보기>는 모음을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모음(㉠)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모음을 구분한 기준으로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가?’가 적절하다.

14 ‘농구’에 사용된 모음 ‘ㅇ, ㅜ’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15 제시된 단어에 사용된 모음 ‘ㅗ, ㅓ, ㅕ, ㅗ, ㅓ’는 모두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1 오답 풀이 ①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은 ‘ㅗ, ㅓ’뿐이다. ‘ㅓ, ㅓ’는 중모음이고, ‘ㅓ’는 저모음이다.

② 발음할 때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저모음의 특징으로, ‘ㅓ’만 해당한다.

③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은 ‘ㅗ, ㅓ’뿐이다. ‘ㅓ, ㅓ, ㅓ’는 평순 모음이다.

④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이중 모음으로, ‘ㅗ, ㅓ, ㅕ, ㅗ, ㅓ’는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단 ‘ㅓ, ㅓ’는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16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것은 저모음(ㅓ, ㅓ)이므로 ‘새우’의 ‘새’가 이에 해당한다.

1 오답 풀이 ① ‘ㅓ’와 ‘ㅓ’는 중모음이다.

③, ⑤ ‘ㅓ’와 ‘ㅓ’는 고모음이다.

17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은 평순 모음(ㅏ, ㅑ, ㅓ, ㅕ, ㅗ, ㅓ, ㅕ)이고, 이 중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은 ‘ㅏ, ㅑ’이다. 마지막으로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을 고르면 ‘ㅓ’이다.

1 오답 풀이 ① ‘ㅓ’는 평순 모음, 저모음,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② ‘ㅓ’는 원순 모음, 중모음,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③ ‘ㅓ’는 평순 모음, 중모음,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⑤ ‘ㅓ’는 평순 모음, 중모음,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18 ㉠ ‘ㅓ, ㅓ’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평순 모음이지만, ㉡ ‘ㅓ, ㅓ’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다.

19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여린입천장소리(ㄱ, ㅋ, ㆁ, ㅇ)이고, 입안이나 목청 사이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켜 소리 내는 자음은 마찰음(ㅅ, ㅆ, ㅎ)이며,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ㅏ, ㅑ, ㅓ, ㅕ, ㅗ, ㅓ, ㅕ, ㅗ, ㅓ)이다. 이 음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은 ‘겨울’이다. ‘겨울’에는 마찰음이 포함되지 않았다.

20 <보기>에서는 여학생이 ‘내’의 ‘ㅓ’를 저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중모음 ‘ㅓ’로 발음해서 남학생이 ‘내’를 ‘네’로 잘못 알아 들었다. 따라서 저모음인 ‘ㅓ’를 발음할 때에는 중모음인 ‘ㅓ’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크게 벌려서 혀의 위치가 낮게 발음해야 한다.

21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정확하게 발음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하게 되어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3 세상을 담아내는 창

(01.복합양식의글과자료읽기) 본책 20~23쪽

- ① 타당성 ② 출처 ③ 목적 ④ 일자리 ⑤ 흥미
⑥ 비교

01 ④ 02 ④ 03 인공 지능의 발달이 미래 사회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며 글의 내용을 타당하게 전개하였다. 04 ⑤ 05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자가 인공 지능의 발달 정도를 실감할 수 있게 한다. 06 ④ 07 ① 08 ① 09 (1) 주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자동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10 ③ 11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12 ③ 13 ① 14 ⑤ 15 ⑤

- 01 이 글은 인공 지능의 활용 사례와 인공 지능의 발전이 미래 사회의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는 글로, 중심 화제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 견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다)를 바탕으로 볼 때 단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 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단순한 업무를 기피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3 이 글은 인공 지능의 발달이 미래 사회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늘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과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04 복합양식을 활용한 글과 자료의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05 [A]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이다. 동영상은 대상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어 문자로만 이루어진 글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고, 인공 지능의 발달 정도를 독자가 실감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달한다.
- 06 ㉠은 세계 경제 포럼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이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여 내용을 신뢰할 만하다(ㄴ).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앞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므로 근거로 적절하다(ㄹ).

|오답 풀이| ㄱ. ㉠은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낸 발표 자료로,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ㄷ. ㉠은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므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07 (라)에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인공 지능 분야의 고용 경향을 분석한 꺾은선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 주는 그래프 형태이며, 각 분야의 비율이나 구성 요소를 보여 주는 것은 원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 08 이 글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으로 창조하는 능력, 돌보는 능력, 조정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공 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 09 (나)에서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은 직업에서는 인공 지능이 주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자동화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다)에서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 10 (다)의 자료는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여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의 백분위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ㄴ),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ㄷ).
- |오답 풀이| ㄱ. (다)에 제시된 막대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 ㄹ. (다)에 제시된 자료로는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만 알 수 있으며,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수의 변화는 알 수 없다.
- 11 ㉠은 미래 사회에 인간이 길러야 할 역량에 관해 전문가(경제 평론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12 (라)에서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인공 지능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 및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에는 인공 지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인공 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글의 흐름에 적절하다.
- 13 [A]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전문가(경제 평론가)의 인터뷰 영상 자료로, 화면 속 자막을 통해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14 이 광고에는 다문화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피부색의 차이가 드러나게 인물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은 오히려 다름을 부각하는 것으로, 제작자의 의도에 맞지 않으며 광고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15 <보기>에서는 이 광고에서 제시한 '다문화 청소년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메시지 속에 다문화 외의 학생들을 '우리'로 묶어 다문화 학생들과 구분하는 관점이 숨어 있다고 말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0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 쓰기) 본책 24~27쪽

- ① 변화 ② 동영상 ③ 주제 ④ 유형 ⑤ 개요
⑥ 표현 ⑦ 저작권

- 01 ⑤ 02 ⑤ 03 최신의 자료인가? 04 ⑤ 05 ①
06 동영상을 통해 신곡 발표 순간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07 ① 08 ② 09 공연에 가지 못해 아쉬울 팬들을 위해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 등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 ② 11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12 ⑤ 13 ④ 14 ①

- 0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종류,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유형 등을 정한다. 복합양식 자료의 활용 여부를 정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02 (라)는 가수 두드림의 신곡 발표 순간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신곡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이지만, 신곡을 완성하기까지 노력한 과정(신곡 제작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다.
- 03 글쓰기 과정에서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한 후, 실제로 글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자료가 지나치게 오래되지 않은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 04 공연을 관람한 팬들의 후기를 취합한 블로그 글 링크는 다양한 관람 소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ㄷ). 공연의 진행 순서와 주요 무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표는 공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ㄴ). 공연 당시 관객들의 응원을 담은 동영상은 현장 분위기와 생동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ㄱ).
- | 오답 풀이 |** ㄱ. 가수 두드림이 홍보하는 제품의 광고 포스터는 공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아 자료로 선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ㄴ. 공연의 무대 장치를 담당한 업체의 실적 그래프는 공연에 관한 정보 전달과 관람 소감을 전하려는 글의 목적 및 주제와 관련성이 낮아 자료로 선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5 (마)와 같은 개요는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 06 (라)는 신곡 발표 순간을 담은 동영상으로, 신곡 소개 글(문자)과 함께 동영상을 첨부하면 신곡 발표 순간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동영상은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특성이 있다.
- 07 글을 쓰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에 맞춰 주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08 이 글은 '두드림의 10주년 공연'을 소개하는 글로, 공연 일시 및 공연장, 신곡 공개 등 공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09 (가)의 '오늘은 공연에 가지 못해 아쉬울 팬들을 위해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 등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에서 하능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알 수 있다.
- 10 (가)~(다)에서 활용한 복합양식 자료는 독자에게 정확한 공연 정보와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자료의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하는 등 변형하여 전달하고 있지 않다.
- 11 복합양식 자료는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결합되어 내용을 더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로,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문자와 같은 단일 양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내용을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2 <보기>는 글의 유형이 '블로그 글'일 때에는 공연장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할 수 있지만, 인쇄 매체에는 링크를 첨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지도를 넣고 설명을 덧붙이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를 통해 같은 목적의 글이라도 글의 유형에 따라 활용하는 복합양식 자료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13 <보기>의 댓글에서는 이번 공연에서 팬들과의 소통 시간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질문했으므로, 두드림 구성원들이 팬들과 질의응답하며 선물을 건네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넣어 질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 14 글의 '처음' 부분에서 글쓴이의 경험을 소개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므로, 달리기하는 글쓴이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 2' 부분에서는 '바른 달리기 자세'와 같이 연속적인 동작이나 신체 움직임을 설명해야 하므로, 대상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4 창의적인 발상, 표현하는 재미

(01. 반어, 풍자, 역설 표현)

본책 28~31쪽

① 반어 ② 웃음 ③ 역설 ④ 참신 ⑤ 푸대접
⑥ 풍자 ⑦ 비판 ⑧ 희망

01 ⑤ 02 ② 03 ⑤ 04 한시를 창작하며(지으며) 학식을 과시했다. 05 ④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높은 바위, 푸르른 나무 11 ⑤ 12 ② 13 ⑤ 14 (1) 봄 길, (2) 희망의(긍정적) 공간 15 ①

01 (가)~(라)의 중심 사건은 어사또가 신분을 감춘 채 걸인 차림으로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끼어든 것과, 어사또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한시를 지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변 사또는 어사또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사또를 걸인으로만 생각하여 푸대접하였다.

② 어사또는 변 사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변 사또의 태도와 됃됨이를 살펴보고 암행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③ 잔치 자리에 어사또가 끼어든 것을 변 사또가 못마땅해하는 내용은 드러나지만, 다른 수령들의 반응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변 사또는 걸인 차림의 어사또를 잔치 자리에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운봉 진영장의 제안으로 마지못해 잔치 자리에 들이는 것을 허락한다.

02 변 사또의 생일잔치가 한창인 관아 앞에서 어사또가 큰 소리로 사령들을 부른 것은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걸인 행색을 한 자신을 대하는 변 사또의 모습을 보고 그의 태도와 됃됨이를 살펴보려 한 것이다.

03 [A]의 ‘금동이’나 ‘옥쟁반’ 등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탐관오리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표현한 것이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04 잔치 중에 관리들이 시를 짓는 모습을 통해 한시(漢詩)를 창작하며 학식을 과시하던 당시 양반들의 풍습을 알 수 있다.

05 “이렇게 좋은 잔치에 맞난 술과 음식을 양껏 먹고”는 반어 표현으로, 실제로는 푸대접을 받은 상황을 비꼬려는 의도로 한 말이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의 성찰이나 반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보기>는 말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에 대한 설명이다. ㉠은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가 말소리가 같은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를 활용하였다.

07 (나)에서 어사또가 나타나자 놀란 변 사또는 겁이 나서 몸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며 안으로 들어가 횡설수설한다. 따라서 변 사또가 관아 밖으로 달아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은 언어유희로, ‘문’과 ‘바람’, ‘물’과 ‘목’의 단어 위치를 바꾸어 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09 춘향은 “내려오는 벼슬아치들마다 하나같이 홀륭하기만 하구나.”라는 반어 표현을 통해 변 사또뿐만 아니라 어사또 또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임을 비꼬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명령이 부당함을 비판하려는 의도인 것은 맞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내었다.

② 어사또가 변 사또보다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사또 또한 변 사또 못지않게 부정한 관리임을 비꼰 것이다.

③ 춘향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은 어사또의 말이 자신의 기대와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사또 또한 탐관오리임을 비꼬는 것이다.

⑤ 어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정한 처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춘향은 어사또를 예찬하기 위해 ㉠과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사또를 비꼬고 비판하기 위해 ㉠과 같이 말한 것이다.

10 ‘수절’은 ‘절개와 의리를 지킴.’을 뜻한다. (라)에서 춘향은 자신의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높은 바위’와 ‘푸르른 나무’로 표현하였다.

11 <보기>에서 ‘두꺼비’가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있는 모습은 약자인 ‘파리’를 괴롭히며 기세등등해하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어사또가 등장하자 관리들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은 <보기>에서 ‘두꺼비’가 자신보다 강자인 ‘백송골’을 보고 무서워서 ‘폴떡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는’ 모습과 비슷하다.

12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이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 ‘길이 끝나는 곳’,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는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달리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사랑이 끝나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4 시의 중심 소재는 ‘봄 길’로, 이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과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한 ‘길’이 어우러져 희망의 공간이자 긍정적 공간을 상징한다.

15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시험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실의와 슬픔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감상해 보도록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본책 32~35쪽

- ① 복합양식성 ② 청각적 ③ 유형 ④ 거리 ⑤ 효과음
⑥ 의도 ⑦ 자막

- 01 ④ 02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쓰기 03 ④ 04 ⑤
05 ③ 06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 07 ④ 08 ①
09 ④ 10 ② 11 ② 12 안정적인 분위기(느낌) 13 ⑤
14 ⑤

- 01 영상 매체 자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02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는 장면 번호, 해설, 대사, 지시문 등을 넣어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스토리보드를 쓴다.
- 03 같은 장면이라도 대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 의도에 맞는 촬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ㄷ).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전달하려면 대상을 멀리 촬영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까지 보여 주는 롱 샷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ㄷ).
- | 오답 풀이 |** ㄱ. 카메라의 각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화면 속 대상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대상을 어떤 거리와 각도로 촬영하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ㄴ. 하이 앵글, 아이 앵글, 로 앵글은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각도에 따른 촬영 방법이다.
- 04 (가)에서 학생들은 영상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 영상의 유형, 예상 시청자, 주제 등을 확인하며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상 매체 자료를 소비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 05 영상 제작 기획안을 쓸 때, 영상의 내용은 예상 시청자의 기대가 아니라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한다.
- 06 ㉠에는 영상 매체 자료의 주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영상 매체 자료의 주제는 (가)에서 '여학생 2'의 말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임을 알 수 있다.
- 07 현소는 시나리오를 담당하므로 장면과 순서, 배우의 행동과 대사 등을 글로 표현해야 한다.
- | 오답 풀이 |** ① 영상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것은 '감독' 담당자의 업무이다.
② 배역에 맞게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연기' 담당자의 업무이다.
③ 다양한 촬영 방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촬영' 담당자의 업무이다.

⑤ 촬영 장소를 미리 섭외하고, 의상과 소품 등을 준비하는 것은 '의상 및 소품' 담당자의 업무이다.

- 08 'S# 1-1'의 시각적 요소 중 촬영 방법을 보면 석현이가 누워 있는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촬영한다는 계획이 드러난다. 이는 석현이를 어떤 거리에서 찍을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찍을지 정리한 것이다.
- 09 ㉠은 내레이션으로, 내레이션은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행에 따라 내용이나 줄거리를 화면 밖에서 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해 장면 속에 직접 등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0 (나)는 스토리보드로, 시나리오(각본)를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정리한 장면 연출 판이다.
- | 오답 풀이 |** ①, ③ 스토리보드는 각 장면 그림 및 내용,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등을 정리한 것이다. 영상에 담긴 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영상을 제작한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영상 제작 기획안이다.
④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전체적인 일정은 스토리보드를 쓰기 전에 정리하는 영상 제작 기획안에 드러난다.
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내용은 영상 제작 기획안에 제시된다.
- 11 ㉠은 클로즈업 샷으로 석현이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여 석현이의 실망스러운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을 위엄 있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엄 있게 표현하는 촬영 방법은 대상을 아래에서 촬영하는 '로 앵글'이다.
- 12 <보기>는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각도에 따른 촬영 방법 중 '아이 앵글'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 13 ㉠은 인물의 대사나 인물끼리 나누는 메시지의 내용, 장면의 제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막은 영상 속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이 시청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4 <보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자신이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완성한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 보완할 점을 찾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한다고 해서 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④ <보기>에서 영상 매체 자료를 본 사람이 조언한 내용은 시청자의 흥미나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이다.
③ <보기>에 영상 매체 자료에 관해 평가하고 조언하는 내용은 드러나지만, 이를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문해력을 높이는 문제집

1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01. 사회를 비추는 문학)

본책 39쪽

- 01 ㉠ 02 ㉡ 03 ㉢ 04 일체 05 인하 06 휴전
07 ㉣ 08 ㉤ 09 ㉥ 10 반영되어 11 싸전
12 도약할

- 05 '인상'은 '물건값, 봉급, 요금 등을 올림.'이라는 뜻이다.
08 제시된 문장은 그가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의 '먹고살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제시된 문장은 이 소설에 작가의 개성이 나타난다는 맥락이므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뜻의 '반영되어'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회사의 대표가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를 세계 최정상 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맥락이므로, '(비유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다.'라는 뜻의 '도약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공감하고 조정하는 대화)

본책 41쪽

- 01 ㉠ 02 ㉡ 03 ㉢ 04 경청하다 05 비난
06 감정 07 ㉣ 08 ㉤ 09 ㉥ 10 원만하다
11 공감할 12 쌀쌀맞은

- 05 '평가'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수준 등을 헤아려 정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이라는 뜻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그가 갈등하는 사람들의 중간에서 서로 화해하거나 합의하도록 이끌었다는 맥락이므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다.'라는 뜻의 '조정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이 글이 순서와 관계없이 뒤섞여 있는 그의 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새롭게 구성했다는 맥락이므로,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하다.'라는 뜻의 '재구성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제시된 문장은 형의 성격이 수수하고 털털하여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는 맥락이므로, '서로 사이가 좋다.'라는 뜻의 '원만하다'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2 빛나는 우리 말글살이

(01. 한글의 원리와 가치)

본책 43쪽

- 01 ㉠ 02 ㉡ 03 ㉢ 04 가없다 05 음절
06 표기하다 07 ㉣ 08 ㉤ 09 ㉥ 10 독창적
11 상형 12 탁월하여

- 04 '침통하다'는 '슬픔이나 걱정 등으로 몹시 마음이 괴롭거나 슬프다.'라는 뜻이다.
05 '가획'은 '원글자에 획을 더함.'이라는 뜻이다.
06 '모아쓰다'는 '한글 자모를 가로세로로 묶어서 쓰다.'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기업에서 이전까지 없던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맥락이므로, '다른 것을 모방함이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라는 뜻의 '독창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꼴이 보습 효과와 살균 효과가 좋다는 맥락이므로,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라는 뜻의 '탁월하여'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음운의 체계)

본책 45쪽

- 01 ㉠ 02 ㉡ 03 ㉢ 04 방해 05 말소리
06 체계 07 ㉣ 08 ㉤ 09 ㉥ 10 평평한
11 났다 12 허용하는

- 04 '마찰'은 '두 물체가 서로 닿아 비비짐. 또는 그렇게 함.'이라는 뜻이다.
05 '단모음'은 '소리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라는 뜻이다.
06 '표준'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등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형이 비탈진 산길을 고르고 판판한 길을 걷듯 가뿐하게 올랐다는 맥락이므로, '바닥이 고르고 판판하다.'라는 뜻의 '평평한'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반려견의 출입을 허락한다는 맥락이므로,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허용하는'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3 세상을 담아내는 창

(01. 복합양식의 글과 자료 읽기) 본책 47쪽

- 01 ㉠ 02 ㉡ 03 ㉢ 04 구매 05 타당하다
06 고유하다 07 ㉣ 08 ㉤ 09 ㉥ 10 역량
11 절감하기 12 비판적

- 04 '자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 08 제시된 문장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는 맥락이므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이라는 뜻의 '대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는 맥락이므로, '아끼어 줄이다.'라는 뜻의 '절감하기'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학자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맥락이므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뜻의 '비판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 쓰기) 본책 49쪽

- 01 ㉠ 02 ㉡ 03 ㉢ 04 과장되다 05 함축적
06 결합하다 07 ㉣ 08 ㉤ 09 ㉥ 10 특징
11 위배되는 12 선별하여

- 07 제시된 문장은 바람의 힘으로도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맥락이므로,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뜻의 '생성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제시된 문장은 사람들의 성격을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맥락이므로, '성질이나 특징 등이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이라는 뜻의 '유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가 용어를 적절하게 가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맥락이므로, '가려서 따로 나누다.'라는 뜻의 '선별하여'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4 창의적인 발상, 표현하는 재미

(01. 반어, 풍자, 역설 표현) 본책 51쪽

- 01 ㉠ 02 ㉡ 03 ㉢ 04 행태 05 부조리
06 풍자 07 ㉣ 08 ㉤ 09 ㉥ 10 부정부패
11 분주하게 12 가관

- 04 '행색'은 '겉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라는 뜻이다.
- 05 '푸대접'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이라는 뜻이다.
- 06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 11 제시된 문장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맥락이므로,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라는 뜻의 '분주하게'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하루종일 진흙탕에서 굴러 엉망이 된 아이들의 모양새가 불만하다는 맥락이므로, '꼴이 불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가관'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본책 53쪽

- 01 ㉠ 02 ㉡ 03 ㉢ 04 복합적 05 초상권
06 위엄 07 ㉣ 08 ㉤ 09 ㉥ 10 조망할
11 유의할 12 제작

- 04 '감각적'은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 05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라는 뜻이다.
- 06 '총괄'은 '모든 일을 한데 묶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이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산 정상에 올라가 멀리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맥락이므로, '먼 곳을 바라보다.'라는 뜻의 '조망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경기 관람 시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는 맥락이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의 '유의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